

금호석유화학, 탄소나노튜브 사업 진출

150억원 투입 전주에 50톤 공장 건설 ... 2013년까지 300톤으로 확대

금호석유화학이 탄소나노튜브(CNT)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금호석유화학은 전라북도 전주시와 탄소나노튜브 상업화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0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150억원을 투자해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의 9900m² 부지에 탄소나노튜브 50톤 공장을 건설한 후 단계별로 증설해 2013년까지 3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 동소체(탄소로 이루어졌지만 물질적·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의 일종인 탄소나노튜브는 인장강도가 철의 100배에 이르고, 전도성은 구리보다 1000배 뛰어나 전지 및 콘덴서, 바이오, 의약,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탄소나노튜브 상업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알루미늄 복합재 분야로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전자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30>